# 찬연한 '신라시대 금빛 보살상' 만나다

**국립춘천박물관 7월 28일까지**
**'다시 찾은 신라의 빛' 展 개최**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 공개**
**5월 14일 국제학술심포지엄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천년 넘게 땅속에 묻혀 있다 출토된 신라시대 금동보살입상이 강원도 춘천에서 찬란한 금빛 자태를 뽐낸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재열)은 7월 28일까지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시 '다시 찾은 신라의 빛: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5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선림원 터에서 출토된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이 단독 조명된다. 양양 미천골 옆에 위치한 선림원 터는 금당과 승방을 비롯해 여러 전각으로 이루어진 통일신라의 절이 있던 곳이다. 보살상은 2015년 발굴 당시 출토지가 명확한 통일신라의 소형 금동상 가운데 가장 크고 대좌와 광배, 장신구를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국보급 걸작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오랜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2023년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대중에게 공개됐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금속 보존처리 담당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각 국립박물관의 보존과학자, 미술사 연구자의 자문을 받고, 통일신라의 다른 광배와 비교해 남은 광배 편을 맞춰 추가 복원했다.


양양 선림원 터에서 출토된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
사진제공=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의 원형 독립 공간에는 단 한 점,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만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저반사 유리로 된 진열장이 새로 제작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광배 뒷면까지 사방에서 선명하게 보살상을 감상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오랜 시간 보존처리와 복원을 거쳐 공개된 모습은 천년 넘게 땅 속에 묻혀 있던 서러움을 보여주듯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평가다. 대좌와 광배를 모두 포함, 높이는 66.7㎝이며 강렬한 금빛과 몸에 두른 화려한 장신구가 시선을 끈다.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현실의 어려움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관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국립춘천박물관 측은 "금동보살입상과 시선을 마주할수록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자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애로운 인상과 유려한 자태, 섬세한 장신구와 광배까지 모두 다시 찾은 신라의 빛"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에는 금동보살입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촉각 체험물과 조각난 광배 편을 맞추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을 통해 관람객이 불교미술 전시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게 구성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전시를 기념, 5월 14일 관내 강당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첫 학술행사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석굴암 창건 기록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통일신라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금동아미타불좌상의 제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민병찬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술사 전공자와 보존과학자 등 전문가 5인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꽃피운 '전통사경'

**6월 9일까지 오현주 作 등 30작품 전시**
**범어사 소장 국보 〈삼국유사〉 권5 재연**
**정여 대종사, 30여 점 선서화 작품 출품**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6월 9일까지 2층 기획전시관에서 '환희의 정원, 전통사경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사경의 대가 오현주 사경장의 작품들을 집중 조명하며 오백나한도, 화엄경약찬게, 금강경변상도 등 대작을 비롯한 약 30여 점의 다양한 사경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 범어사 소장 국보 〈삼국유사〉 권5 효선편을 새롭게 필사하여 선보인다.

오현주 사경장은 1978년 서예가 여산 권갑석 선생의 지도 아래 서예에 입문했다. 문인화, 탱화, 고려사경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왔으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여러 서예전에서 수상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전통사경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묘법연화경, 오현주 作. 사진제공=범어사 성보박물관

오현주 사경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경은 단순한 글씨 쓰기를 넘어서 영혼을 담는 작업이다"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사경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 귀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정여 대종사의 선서화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정여 대종사는 불교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에 '무아(無我)', '차(茶)나 한 잔'을 비롯하여 25여 점의 선서화 작품을 출품했다. 선서화는 불교의 가르침을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 작품들은 사경과 결합하여 관람객에게 여유를 심어주고, 깨달음의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전시에 깊이를 더한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많은 불자와 일반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아 다양한 작품관람도 하고, 사경의 공덕으로 모든 분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다가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시대가 바뀌어 경전을 간행하는 일이 수월해지고 책이 흔해졌다고는 하나, 불법의 가르침이 가벼워졌다고는 할 수 없다"며 "허나 누군가는 옛 어른의 정신을 받들어 경을 남기는 일에 진력해 주었으면하고 바란다. 묵묵히 그 소임을 해내고 있는 오현주 사경장이 이번 전시의 주인공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오현주 사경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시장 내 꾸며진 작업실에서 사경 제작을 시연하고, 관람객들에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박물관으로 사전 연락을 하면 해당 시간 외에도 체험 신청이 가능하며, 사경에 관심 있는 어린이나 성인 관람객들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051)508-613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불교상담학회, '불교 예술치유' 학술대회

**5월 25일, 제21회 춘계학술대회**

'불교와 예술치유'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5월 25일 오후 1시 '불교와 예술치유'를 주제로 '제21회 한국불교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안양규 동국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해,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사회는 명오 스님(동국대), 좌장은 윤종갑 동아대 교수가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범패수행과 심신치유에 관한 고찰 △만다라 명상 미술치료에 담긴 치유 요소 연구-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붓다볼(싱잉볼) 명상과 그 효과에 대해 발표하며, 발표자는 해사 스님(동국대), 임시연(동방대), 김경숙(동국대)이다. 논평은 능화 스님(한예종), 원희랑(서불대), 김소형(동의대)이 맡는다.

학술대회는 비대면(웹엑스)으로 진행되며 웹엑스 접속번호: 2555 627 9782, 비밀번호: 123456으로 접속하면 된다. 010-2933-006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제14회 반야학술상 수상후보자 공모

**접수마감 6월 15일…수상자 1000만원**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이 제14회 반야학술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

반야학술상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분야에 연구업적이 뛰어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심사를 통해 수상자 1명에게 연구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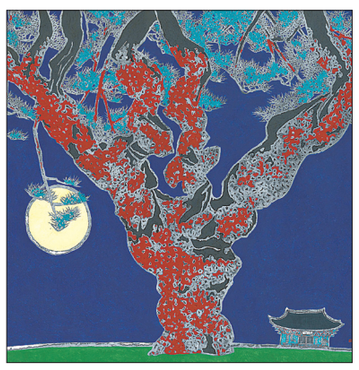
접수는 오는 6월 15일까지며, 자세한 응모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banyaresearch.org)를 참조하면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임무상의 그림산책 2' 출간기념 초대전

**6월 1일~9월 30일, 갤러리 삼강**

K-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왔던 임무상 작가가 '임무상의 그림산책 2권' 발간을 기념하며 전시회를 연다. 갤러리 삼경 기획으로 진행되는 임무상 초대전은 '임무상의 그림산책 2권'에 실린 작품 중 20여 점이 전시된다. 2005년 2월 금강산 기행 후 작업한 대작 '만물상' '구룡폭포'를 비롯해 '내연산 보경사 월송' '하동 문왕송' 등 2023년 신작이 대거 공개된다. 이 외에도 '북한산 인수봉' '불암산' '송광(松光)' 등 대부분 자연 회기와 친화적 소재들이다. 시대적 화두인 '친환경' '더불어 살기'에 부응하는 작품들로, 회고의 상징성을 담았다.


내연산보경사월송(月松), 125x138cm, 한지, 먹, 천연혼합채색, 2023.

임무상 작가는 "작품 면면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온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공감하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임무상 작가는 지난해 8월, 100회 작업을 책으로 엮어 '임무상의 그림산책 1권'을 출간했다. 이후 기록한 100회의 작업으로 최근 2권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남양주 갤러리 삼강에서 진행된다. 0507-7435-1120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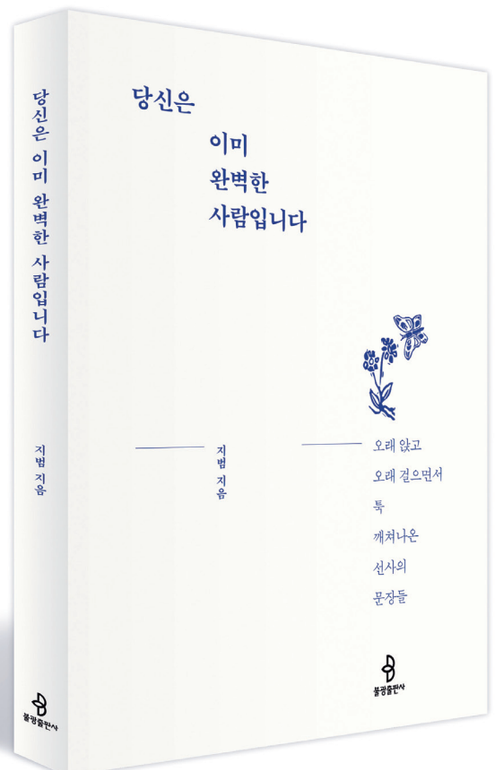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며,
충분히 완벽한 사람이다.

세상이 두렵고, 혼란스러우며,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지범 스님의 넉넉한 미소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하심의 마음결에서
끝까지 가본 사람의 단단한 공부 속에서
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래 앉고
오래 걸으면서
툭
깨쳐나온
선사의
문장들

지범 지음 | 224쪽 | 값 17,000원




지범 스님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 보문선원 선원장. 1978년 출가 후 20년 넘게 운수납자로 살아오며 전국 제방선원에서 오로지 수좌의 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대자암 무문관, 백담사 무문관, 진귀암 무문관 등에서 3년을 치열하게 몸을 던졌으며, 봉암사와 고운사 100일 용맹정진을 여법하게 회향하기도 했다. 2000년 은사스님이 갑작스럽게 입적하게 되어, 보문사 주지를 맡게 되었다. 이후에도 결제철엔 선방에 방부를 들이고 수좌로 돌아가 좌복에 몸을 던져왔다. 2022년 서울 도심에 출 · 재가자가 함께 정진할 수 있는 보문선원을 개원하고, 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이끌며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제34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BBS불교방송 '지대방 산책'에서 법음을 전하고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